

## 영재아 부모의 성격유형과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

하 종 덕

재능대학교

본 연구는 자녀의 영재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성격유형과 양육태도에 있어 영재아와 일반아 부모들의 그것에 있어 어떤 특성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영재학생 어머니 85명과 일반학생 어머니 101명 등 총 186명을 대상으로 MBTI검사와 양육태도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영재아 어머니들은 일반아 어머니들에 비해서 내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일반아의 어머니들은 영재아의 어머니들에 비해서 외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영재아 어머니들은 일반아 어머니들보다 직관적, 판단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일반아의 어머니들은보다 인식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영재아 어머니들은 일반아 어머니들에 비해서 보다 더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반아 어머니들은 보다 더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주제어: 영재아, 성격유형, 양육특성, MBTI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개인이 태어나 성장하는 데 인지적인 측면이나 정의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학교의 교사나 또래 친구들보다 가정에서의 부모일 것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 최초이자 영원한 인생의 안내자로서

한 개인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것이다. 영재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영재아가 자라난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아동기에 가정에서 남다른 지적인 자극을 제공해 주었으며, 지적인 성취에 대한 가치를 격려했고, 성공과 포부수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 주었고, 성공의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아 나섰으며, 최고와 정상에 대한 동일시의 대상이 있으며, 부모나 가족의 헌신과 희생 위에서 자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에 의해 아이들의 재능 발달의 선천적, 후천적 요인이 결정되고 부모에 의해 재능의 수준이나 발현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한기순·박인호, 2006a).

영재아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이 별로 미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전문가는 아마 없을 것이다. 오히려 영재아들의 잠재된 영재성 개발에 부모를 포함한 가정의 긍정적인 환경이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영재성 개발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점차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영재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 및 가정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영재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영재성이 보이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 부족과 자료 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박성익 외, 2003). 그래서 한기순 외(2006a)는 잘못된 양육으로 인하여 재능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의 목표인 영재성의 최대 발현, 즉 창조적 성취를 이끌기 위해 부모로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실제로 영재아의 재능발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70%가 부모를 꼽았고, 또한 음악, 미술, 수학, 운동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인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Bloom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부모의 열렬한 후원 속에 재능을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한다(전경원, 1997). 영재성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김연주, 1998; 이신동, 2008; 최성연, 2001)에서는 부모의 학력 수준, 직업, 가계 수입 수준, 학습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재의 부모는 높은 학력을 소지하고 경제적인 풍요와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양질의 가정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높은 학력의 부모를 둔 자녀만이 영재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인 풍요와 좋은 환경을 갖춘 가정에서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이신동(2008)은 자녀의 영재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으로서 높은 학력, 경제적인 풍요, 좋은 가정환경과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 부모의 개인적 특성, 교육적 배경, 태도, 양육방법 등이 더욱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아들은 물론 영재아들의 성장 발달과정에서 그들의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볼 때, 자녀의 영재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영재아부모의 양육태도만을 연구변인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아 어머니의 성격유형과 양육특성이 일반아 어머니들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함께 파악해 봄으로써 자녀의 영재성을 기르기 위한 부모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성격과 양육태도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구명하였다.

- 연구문제 1. 일반아 부모와 영재아 부모의 성격유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일반아 부모와 영재아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 이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행동

특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이 교사나 또래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지적인 측면이나 성격뿐 아니고 태도, 가치관, 도덕성, 사회성, 자아개념, 그리고 자아정체감 등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있다.

정원식은 가정환경을 지위환경, 구조환경, 과정환경의 측면에서 분류하고 가정의 과정환경을 다시 다음과 같이 수용-거부, 자율-통제,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 등으로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다(구미숙, 2003: 재인용).

수용-거부의 측면은 애정, 이해, 존중의 태도로 표시되는 심리적 과정과 무시, 학대, 체벌, 거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극을 연결하는 측면이다.

자율-통제의 측면은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르는 자유를 인정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비 지시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자율의 극과 지시, 지배, 억압, 금지 일변도의 태도로 대하는 통제의 극을 연결하는 측면이다. 자율을 비 권위주의적이라 한다면 통제는 권위주의적 관계이다.

보호-방임의 측면은 관심의 표시, 따뜻하게 감싸주는 일,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조력하는 일을 포함하는 보호적인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극과 무시, 무관심, 방치, 무성의 등으로 나타나는 방임의 극을 연결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성취-안일의 측면은 월등하게 높은 포부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격려 요구하며 항상 활동하기를 권장하고 박력과 끈기를 가지고 과업의 달성을 요구하는 성취적인 과정의 극과 무사안일, 현실만족을 강조하는 비 성취적인 경향의 극을 연결하는 측면이다.

개방-폐쇄의 측면은 대인관계에서 무 편견, 자유스러운 자기 개조 등 개방적인 태도와 자기중심적 사고의 경향을 나타내는 폐쇄의 극을 연결하는 심리적 과정의 측면이다.

## 2. 부모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아동 성격의 기초가 될 부모의 양육 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언행,

표정, 마음 쓰임 등 포괄적인 부모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Waltson(1965)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사회, 문화적 배경과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 요소 등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고, Fishbein(1975)은 하나의 문화 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기능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으로 양육태도를 정의하고 있다(김현정, 2001: 재인용).

Jung의 유형 이론에서는 환경의 역할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왜냐하면 환경적 요인은 각자 타고난 경향을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시켜 이를 발달시킬 수 있고, 반대로 타고난 유형과 어긋나는 활동을 강요하여 타고난 유형의 발달을 저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적 요인에 의해 타고난 기능보다 그 반대의 기능을 사용하게 될 때 유형의 변조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자기가 타고난 유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적응이 되나 만족감이라든가 유능감을 덜 느끼고 자기가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김정택·심혜숙·제석봉, 1995).

많은 연구에 의하면, 논쟁은 되고 있으나 성격 유형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표현되는 데, 타고난 능력과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달라 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좋은 능력과 좋은 환경만이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열등한 기능도 좋은 환경을 만나면 좋은 주 기능을 타고난 사람처럼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용에 의하면 열등기능의 개발이야말로 성숙한 성격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김현정, 2001).

심혜숙 외(1998)는 부모의 성격유형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외향형의 양육태도

자녀가 외부 세계를 경험하도록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고, 끊임없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녀와의 일상적인 대화를 즐기고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을 익숙해한다. 또 어떤 일이 순조롭고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본보기 역할을 잘 한다.

나. 내향형의 양육태도

자녀가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 속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고자 하고, 자녀 각자를 깊이 알고자 자녀에 대해 깊이 관찰하고 생각하려고 한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고집하는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하며, 자녀 스스로의 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면서 가급적 자신의 가족에게 보다 중점을 두는 태도이다.

다. 감각형의 양육태도

자녀의 기본적인 욕구를 돌보고, 자녀를 위해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꾸미며 가족의 전통을 준수해 나가려 한다. 그리고 자녀에게 체육관, 놀이, 산책, 여행, 화초 가꾸기 등 풍부한 감각적 경험을 자주 갖도록 기회를 찾는 편이다.

라. 직관형의 양육태도

대안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자녀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적인 경험 이면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나 의미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안을 확고히 정하도록 장려하는 편이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방법이나 접근을 모색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찾기도 한다. 또한 모든 면에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매우 가치롭게 여기며 발달시키려고 노력하는 태도이다.

마. 사고형의 양육태도

자녀에게 독립적일 필요가 있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자기 신뢰와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해 주고 돕는 활동을 즐긴다. 그리고 자녀가 솔직하고 내용에 충실한 토의를 즐기도록 독려하고, 모든 상황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태도이다.

바. 감정형의 양육태도

자녀가 부모를 감사히 여기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자기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만족을 느끼

며, 자녀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측면이 크다. 그리고 협력하고 조정하고 주고받는 것에 고무되며, 자녀의 욕구가 어떤지 항상 살피면서 적절히 대처하는 태도이다.

#### 사. 판단형의 양육태도

자녀의 장래를 위해 인내하고 차츰차츰 만들어가는 타입으로서 질서와 순조로운 흐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어떤 일에 있어 지시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자녀가 준비물, 과제물 등을 잊지 않도록 일상생활을 조직하고, 식사시간, 취침시간 등 가족의 규칙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태도이다.

#### 아. 인식형의 양육태도

자녀로 하여금 많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다양한 경험과 사람들을 접할 때는 개방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며 놀기를 즐기고, 자녀의 방해나 귀찮음에도 이를 잘 응대해 준다. 또한 자녀를 강요하거나 어떤 틀에 가둬 두려고 하지 않고, 자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책임을 갖고 행동하도록 하며, 이의 결과에 대해서도 수용적이며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 3. 영재아와 부모의 양육특성

자녀가 영재성을 지녔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며 주변 사람들로 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영재자녀를 둔 부모는 종종 영재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양육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게 되는 일이다. 보통 부모가 겪는 어려움에도 개인차가 많이 있겠지만, 영재자녀를 둔 부모의 고민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일반 교육시스템에서 영재자녀에게 특수한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일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영재교육을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가 영재교육을 받음으로써 일반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와

못 어울리게 될까봐 염려하기도 한다. 자녀 중 한 명이 영재로 판별을 받거나 영재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 기울이는 관심과 시간이 달라지게 되고,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경제적인 비용도 달라진다. 그로 인해 가족관계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모든 부모들이 항상 자신의 자녀가 영재라고 믿거나 영재이기를 바라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떤 영재아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적응을 잘하는 평범한 아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녀의 특수한 능력을 부인하려고 한다. 반면 이와는 반대되는 태도를 가진 부모들은 자기자녀의 능력을 과장해서 자신의 자녀에게 모든 영역에서 좋은 성취를 보일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녀의 영재성을 부인하거나 과장하는 부모의 극단적인 태도는 영재아 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취학 전 영재 부모들 중 대부분의 부모들은 소극적인 자세로 자녀발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석희 1987). 아동중심의 학습활동을 전개하면서 자녀가 과제수행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힌트를 주어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가 갑작스럽게 실력의 저조함을 보였을 때도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편이었다. 또한 영재들의 끈질긴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으며, 자녀에게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교육태도는 보이지 않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 자녀들이 하나의 과제에 집착하고 있을 때 이러한 집착력을 길러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애 쓰고 있었다. 자녀의 생활방식과 훈육은 주로 대화를 통해서 자녀로 하여금 특정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를 이해시키고 그에 따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었다. 자녀의 놀이지도는 대체로 계획이나 고려없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장난감은 주로 자녀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기에 구입하고 텔레비전 시청도 자녀가 원하는 것이면 시청하게 한다고 반응하였다(이신동, 2008: 재인용).

영재 부모의 양육특성이나 가정환경이 영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다. 특히 가정의 교육적 배경, 부모의 태도 양육방법 등은



영재성을 통한 재능개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녀의 다양한 행동에 반응하는 부모의 태도는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부모로서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자녀의 생활을 존중해가며, 과제에 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아동들은 문제의 대안을 더 잘 생각한다거나 또래에게 동의를 얻지 못해도 불안해하지 않는 창조적 성격과 자질을 발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이신동, 2008).

진선미(2000)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부모의 좌절감,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 자녀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동참하기, 자녀가 창조성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 교수-학습에 대한 부모의 태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성, 좌절, 놀이, 교수-학습영역에서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 간에 양육태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영재성 계발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이신동, 2008: 재인용).

또한 영재유아 부모들이 일반유아 부모들보다 더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반면, 거부적인 면에서는 영재유아 부모들이 낮은 양육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구미숙, 2003).

30년 동안 영재부모 상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Silverman도 영재부모들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였다(윤여홍, 2008). 영재부모들은 영재아와 일반아의 발달상의 차이, 아이 장단점의 평가 문제, 가정에서의 적절한 자극 제공 문제, 적절한 학교 선택의 문제, 학교 관계자로부터의 조력 획득의 어려움,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 미성취와 동기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완벽주의나 높은 민감성 및 내향성과 우울증에 대처하기, 영재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력 제공의 문제, 영재자녀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긴장, 의존적인 자녀의 독립성 향상 문제, 영재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국내의 영재부모들도 영재판별과 관련된 고민, 영재아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에 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고민, 영재아의 교육비와 사교육에 대한 고민, 영재아의 교육환경에 대한 고민, 학교 및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된

고민, 영재아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고민, 가정에서의 교육 문제와 관련된 고민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으로 갈수록 영재자녀를 둔 부모는 학습과 진로 지도에 더욱 큰 고민을 하고 있다. 또한, 아직도 많은 부모들은 영재아동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영재에 관한 정보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영재부모는 아직까지는 사회로부터 그리고 영재자녀로부터 이중의 공격을 받는 대상이다. 사회는 평준화와 일반인의 잣대로 영재를 바라보며 영재에게 다소 엄격한 기준과 기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영재자녀는 부모에게 자기 스타일대로 이해받고자 하며, 부모에게 의지하거나 지원 받기를 바란다. 영재자녀는 높은 지능이나 창의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제멋대로 행동한다거나, 반항한다거나, 고집이 세다거나, 때로는 교실에서 불손한 언어와 태도로 교사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그래서 부모는 사회와 자녀 사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자녀를 위한 어떤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도움도 구하기 어렵다. 어디에 가서 자녀 문제로 하소연이라도 하면, 오히려 자식 자랑이나 하는 잘난 체 하는 부모로 또는 능력도 안 되는 아이에게 억지로 학습을 시키는 강압적인 부모로 밖에 취급받지 못하는 경우, 때로는 자녀가 성격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처럼 취급받기도 한다.

윤여홍(2008)은 부모-영재자녀의 공통된 관계 유형으로 ① 부모와 영재자녀의 힘겨루기 형태, ② 부모가 영재자녀에게 지나치게 밀착되어 지내는 형태, ③ 영재자녀를 성인처럼 대하는 형태, ④ 문제 행동의 원인을 영재성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는 형태, ⑤ 부모가 자녀를 조종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조종하는 형태, ⑥ 부모가 영재자녀의 영재성을 부인하는 형태 등과 같이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영재아 부모들은 이 같은 여러 유형의 부모-자녀 관계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이상을 형성하기가 쉽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영재 자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일반학생의 어머니 101명과,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초등학교 영재학급에 재학 중인 영재 초등반 4~6학년 아동의 어머니 85명 등 총 186명이었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MBTI검사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를 설문지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 가. MBTI검사

본 연구대상자들의 성격유형과 선호도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MBTI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C. G. Jung의 성격유형론을 바탕으로 K. C. Briggs와 I. B. Myers가 개발한 것을 김정택과 심혜숙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번역과정과 표준화 과정을 거쳐 한국판 MBTI를 개발한 도구이다(김정택·심혜숙, 1990). 이 검사는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활동하는 경향에 대한 반응을 하도록 되어있다. 검사결과 4가지 선호지표에 따라 16가지의 성격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 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검사

본 연구대상자들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지는 Rohner에 의해 제작되고 김언주에 의해 번안된 PARQ(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척도와 정원식의 가정환경진단검사를 기초로 하여 권순명(1993)이 개발하고 구미숙(2003)이 사용한 검사지이다.

설문지의 내용은 4개 영역 즉 수용, 거부, 자율, 통제로 구분하였으며 각 하위 영역마다 15개 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의 Likert식 평정척도이다. 본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23$ 이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검사별 또는 요인별로 반응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를 결측 처리하지 않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집단 간 평균치에 대한 차이검증을 위해 사용한 통계적인 분석은 t검증이었으며, 차이검증의 유의도 수준은 .05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문제에 따라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아와 영재아 부모의 성격유형 (연구문제 1)

일반아 어머니와 영재아 어머니의 성격유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일반아와 영재아 어머니의 성격유형별 평균 및 표준편차

성격유형	일반아(N=101)		영재아(N=85)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외향성	12.6	6.2	9.3	6.7	3.55**
내향성	10.9	6.0	13.8	6.8	3.01**
감각형	22.7	5.5	21.6	5.3	1.41
직관형	7.5	3.9	8.6	3.5	2.03*
사고형	16.2	5.6	16.7	5.3	.63
감정형	9.5	4.4	8.9	3.8	1.13
판단형	17.8	6.6	19.7	4.7	2.20*
인식형	9.8	6.3	7.8	4.9	2.54*

\*\* $p < .01$ , \* $p < .05$

<표 IV-1>에서 보면,

첫째, 외·내향성의 성격유형에서 일반아의 어머니는 외향성에서 12.6점으로 영재아 어머니의 9.3점보다 높은 반면, 내향성에서는 10.9점으로 영재아 어머니의 13.8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이었다( $p < .01$ ).

따라서 일반아 어머니는 보다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반면, 영재아 어머니는 보다 내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영재아와 일반아 어머니의 성격특성에서 내·외향성의 성격유형이 뚜렷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감각·직관형의 성격유형에서 영재아의 어머니는 직관형에서 8.6점으로 일반아 어머니의 7.5점보다 높게 나타난( $p < .05$ ) 반면, 감각형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따라서 영재아 어머니는 일반아 어머니보다 직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감각형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어 영재아와 일반아 어머니의 성격특성에서 감각·직관형의 성격유형이 직관측면에서만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사고·감정형의 성격유형에서는 영재아의 어머니는 사고형에서, 일반아의 어머니는 감정형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도 않았다( $p < .05$ ).

따라서 일반아 어머니와 영재아 어머니는 사고적인 성격이나 감정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판단·인식형의 성격유형에서 영재아의 어머니는 판단형에서 19.7점으로 일반아 어머니의 17.8점보다 높은 반면, 인식형에서는 7.8점으로 일반아 어머니의 9.8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이었다( $p < .05$ ).

따라서 일반아 어머니는 보다 인식형적인 성격을 지닌 반면, 영재아 어머니는 보다 판단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영재아와 일반아 어머니의 성격특성에서 판단·인식형의 성격유형이 뚜렷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2. 일반아와 영재아 부모의 양육태도 (연구문제 2)

일반아 어머니와 영재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일반아와 영재아 어머니의 양육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N	수용		거부		자율		통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반아	101	44.6	4.1	33.9	3.7	39.1	3.4	37.0	4.1
영재아	85	47.1	5.3	31.7	4.9	41.2	3.7	34.7	5.2
t		3.45**		3.34**		4.01**		3.37**	

\*\* $p < .01$

<표 IV-2>에서 보면,

영재아 어머니는 수용적 양육태도에서 47.1점으로 일반아 어머니의 44.6점보다 높았으며, 자율적 양육태도에 있어서도 41.2점으로 일반아 어머니의 39.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이었다( $p < .01$ ).

반면, 일반아 어머니는 거부적 양육태도에서 33.9점으로 영재아 어머니의 31.7점보다 높았으며, 통제적 양육태도에 있어서도 37.0점으로 영재아 어머니의 34.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이었다( $p < .01$ ).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영재아 어머니는 일반아 어머니에 비해 자녀를 보다 더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 양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일반아 어머니는 영재아 어머니에 비해 자녀를 보다 더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로 양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영재아 자녀의 영재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 중에서 영재아 어머니의 정의적인 특성인 성격유형과 양육특성이 일반아 어머니들의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자녀의 영재성을 기르기 위해 바람직한 부모의 성격과 양육태도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의 목적을 구명하기 위해 초등학교 일반학급 학생의 어머니와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격유형 검사(MBTI)와 양육태도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의 연구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아의 어머니들은 일반아의 어머니들에 비해서 내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일반아의 어머니들은 영재아의 어머니들에 비해서 외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심혜숙 외(1988)가 내향적인 성격유형이 자녀의 특성에 대해 주의깊이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자녀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녀 스스로 활동하도록 뒤에서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대로 일반적인 영재아 부모의 특성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재아의 어머니들은 일반아의 어머니들보다 직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판단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일반아의 어머니들은 보다 인식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심혜숙 외(1988)가 직관적인 성격유형이 대안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자녀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적인 경험 이면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나 의미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안을 정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새로운 방법이나 접근을 모색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찾도록 하고, 모든 면에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매우 가치롭게 여기며 발달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주장대로 일반적인 영재아 부모의 특성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성격유형이 영재자녀를 둔 어머니와 일반자녀를 둔 어머니와

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재자녀 어머니의 성격유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으로 그 의미를 부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재아 어머니들은 일반아 어머니들에 비해서 뚜렷하게 보다 더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반아 어머니들은 영재아 어머니들에 비해서 역시 뚜렷하게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영재아 어머니들은 자녀를 보다 더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 양육하고 있는 반면, 일반아 어머니들은 영재아 어머니에 비해 자녀를 보다 더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로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영재아 부모가 일반아 부모들보다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녀가 과제에 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이신동(2008)의 연구 결과나 영재유아 부모들이 일반유아 부모들보다 더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는 구미숙(2003)의 연구 결과 등과도 같은 결과로써 영재아들에게 그들의 영재성을 발달시키는 데 부모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성격특성과 양육태도가 자녀의 영재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부모의 정의적인 특성이 어떠한가 영재자녀에게 그들의 영재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시사점이 되고 있다.

##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재아 부모와 일반아 부모의 성격유형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영재아 부모는 일반아 부모보다 내향적이고 직관적, 판단적인 성격유형을 띠고 있어 부모의 성격유형도 영재아 부모의 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영재아 부모와 일반아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영재아 부모는 일반아 부모보다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지니고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도 영재아 부모의 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중에서 부모의 성격특성과



양육특성은 영재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모의 내향적이고 직관적, 판단적인 성격과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 등이 영재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 중 어머니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점과 제한적인 측정도구, 그리고 세밀하고 다양하지 못한 연구설계 및 분석의 틀 등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일반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의 애초 목적대로 영재아 부모의 특성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나마 의의를 둘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에 다양한 측정도구와 세밀한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의 사용, 그리고 보다 많은 연구대상의 다양화 등 더 많은 관련 연구들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미숙(2003).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순명(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언주(1998). 영재의 심리적 특성 및 가정환경 특성. 경기과학.
- 김정택 · 심혜숙(1990). 성격유형검사(MBTI)의 한국표준화에 대한 일 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지, 3(1).
- 김정택 · 심혜숙 · 제석봉(1995).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현정(2001). **MBTI성격유형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습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박성의 · 조석희 · 김홍원 · 이지현 · 윤여홍 · 진석연 · 한기순(2003). **영재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송인섭 · 이신동 · 이경화 · 최병연 · 박숙희(2001). **영재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학문사.
- 심혜숙 · 콰미자 역(1998). **성격유형과 자녀양육 태도**.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심혜숙 · 김정택(1993). **MBTI 성장프로그램 안내서**.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윤여홍(2008). 영재자녀와 부모와의 관계패턴. **영재아이**, 22, 23. 서울: KAGE.

- 이신동(2008). 영재와 평재 부모의 배경과 양육특성 비교. 영재아이, 20. 서울: KAGE.
- 전경원(1997). 유아 영재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광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전경원(2004). 새로운 영재 재능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 조석희·한순미(1986). 취학 전 영재의 특성 및 부모의 지도실태와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석희(1987). 취학 전 영재의 특성 및 부모의 지도실태와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개발, 50. 한국교육개발원.
- 진선미(2000). 영재 유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성연(2001). 영재아의 부모특성이 영재성에 미치는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하종덕·송경애(2007).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대학생활 적응능력의 관계.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1(4).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 한기순·박인호(2006). 영재자녀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학부모과학영재교육센터. 한국과학재단.
- 한기순·박인호(2006). 창조적 성취자를 기른 동서양 양육자의 특성 비교. 학부모 과학영재교육센터. 한국과학재단.

= Abstract =

## A Study on the Personality Types, Rearing Attitudes of the Gifted Children's Parents

Ha Jong-Duk

*Jaineung Colleg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how parents' personality type and rearing attitude are different between parents of normal children and those of gifted children. For the study, MBTI test and Personality type test were carried out towards 186 elementary schoolers' mother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SPSS WIN 10.0 with the significance level 0.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of gifted children had introvert personality more than those of normal children. The mothers of normal children, on the other hand, showed more extrovert personality than those of gifted children. In addition, comparing to the mothers of normal children, the mothers of gifted children showed intuition type and judging type. However, the mothers of normal children had more perceiving one. Second, the mothers of gifted children showed more acceptive and self-regulating attitude than those of normal children. On the contrary, the mothers of normal children showed more rejecting and controlling attitude.

**Key Words:** gifted children, personality type, rearing attitude, MBTI

1차 원고접수: 2008년 7월 1일
수정원고접수: 2008년 8월 11일
최종게재결정: 2008년 8월 21일